

아침햇살

2017 SUMMER

- 한미특수교육센터 안내&소식 2
로사 장 칼럼 행복한 일탈을 꿈꾸며... 3
교육정보 Autism & Mealtime 4-7
치료정보 흑시... 내 아이가... 8-9
행사 리포트 자폐인식의 날 기념 골프대회 마치고 10-13
정보광장 학교에서 쫓겨나는 어린 아동들을 위해 14-16
희망나누기 Hollywood Bowl 을 다녀와서 17-18
한미특수교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19
이달의 후원자 20

한미특수교육센터 소식

1. 서울 메디칼 그룹이 타이틀 스폰서로 열린 '세계 자폐 인식의 날' 기념 골프대회가 146명의 선수와 20명의 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4월 3일에 'Pacific Palms Resort'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 모여진 기금은 우리 센터의 학생 치료와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전액 기부되었습니다.
2. '발달장애인 가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바깥나들이가 쉽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지난 4월 29일 토요일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헐리웃 볼을 다녀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후원해주신 Open Bank에 감사를 드립니다.
3.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직업 교육의 일환으로 'Yard Sale'이 5월 6일 토요일에 부에나파에 위치한 '남가주성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Won Foundation과 Sunny Designs에서 후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5월 10일 수요일 5시부터 장애 학생들의 그룹 기타렛슨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배우며 화음을 맞추어 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에 있을 첫 번째 데뷔 무대를 위해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무대를 만들려 합니다. 초보부터 누구나 가능합니다.
5.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들이 연합하여 치르는 행사인 '사랑의 마당축제'가 5월 13일 토요일 Whittier Narrows Recreation Park에서 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왕글로벌넷에서 후원해주신 스낵을 게임을 통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참가한 부모님들께는 무료로 상담을 제공해 드렸고 타 장애사역 교회나 단체들과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성 기술 증진 방법'이란 주제로 UCI 박현선 소아발달 전문의께서 5월 19일에 세미나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박세연 하모니아 뮤직아카데미 디렉터로부터 센터의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악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엘에이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길교회에서 이화벽 선생님을 모시고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우리 센터의 '찾아가는 세미나'가 5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약 35분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셔서 'ADHD의 진실과 오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 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2000년 특수교육전문가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개인과 개인 사업자, 그리고 자선기관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인 장애인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해 다양한 교육/치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특수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언어치료, 특수음악프로그램, 개별 특수교육, 놀이치료)
2. 아동, 청소년, 성인 및 가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3. 학교관련문제 및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아스퍼거증후군 상담
4. 학부모를 위한 특수교육 및 Parenting세미나와 워크샵
5. 전문가를 위한 최신 특수교육 및 치료정보 워크샵과 심포지움 주최
6. 특수학교와 장애관련 프로그램 정보 및 자료 제공
7. 특수교육 관련 법률 Referral Service와 사회복지 정보 안내
8. 매스컴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활동과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행사 주최
9. 장애 및 치료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무료 계간지 '아침햇살' 발간

언어소통의 어려움이거나 Special Education Service 등에 관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문의: (562) 926-2040



행복한 일탈을 꿈꾸며...

6월이 되니 어김없이 June Gloom 현상으로 아침에는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흐려 괜히 마음에도 구름이 낀 것처럼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2000년 6월 센터를 시작한 이후 지난 17년 동안 수많은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초기에는 이미 장애로 진단을 받은 자녀를 둔 엄마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이에게 혹 장애가 있을까 염려하며 찾아온 엄마들과의 만남이 더 많아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엄마의 염려는 현실이 되어 아이가 자폐증 가능성이 많으니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 보시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엄마가 충격을 덜 받으실까’ 하는 고민을 하며 이야기를 전하지만 결국 엄마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우리 엄마들에게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아이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찾아다녀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친구나 가족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들은 아이를 위한 일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갈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루는 좀 나아지려나 하는 희망으로, 또 다음 날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으로...를 반복하면서 엄마들은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가기를 바랄까요?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한국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 200명이 전세기를 타고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담은 뉴스를 보며 이곳의 우리 엄마들도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만이라도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기에 서로에게겐 소홀했던 아빠와 엄마,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 때문에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뺏겼다는 생각에 섭섭하고 외로웠던 아이들이 모두 함께 맑은 공기와 자연 속에서 잠시라도 쉴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처럼 전세기는 못 얻지만 우리는 전세 버스를 타고 7월에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1박 2일 짧은 일정이지만 오랜만에 엄마들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치료실만을 오가며 쳇바퀴 돌듯 살 수밖에 없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더 자유롭게 놀며 배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알려드렸을 때 엄마들이 모두 환호하며 “좋아요~~” “꼭 가요~~” 하는 모습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프로젝트는 꼭 이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이라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있다면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오후가 되니 흐렸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창하게 개었고 햇살은 눈부십니다. 함께 여행을 하며 즐거워 할 우리 가족들의 모습처럼....



자폐를 가진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10가지 방법

Autism and mealtime: A therapist's
top ten tips for success



*편집자주 : 아래의 정보는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 또는 행동 치료사와의 개인 상담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의역을 하였습니다.

식습관 문제는 자폐아동과 부모가 겪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장애가 없는 아이들의 부모님에게도 영양 및 식사 시간의 행동은 비슷한 포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자폐증 치료 네트워크의 부모들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말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놓고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나 형제자매에 비해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두려움과 그 음식을 먹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녀와 그 가족에게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추구할 수 있는 10가지 팁을 공유하려 합니다.

1. 신체적 문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폐아동이 불쾌한 식사를 하는 원인이 의학적 문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치, 씹기 힘든 육체적 고통 및 위산 역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담당 의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검사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식사 시간을 편하게 만드십시오.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은 식사 시간이 다가올 때 큰 불안을 느낍니다. 근본적인 원인에는 감각적 반감과 익숙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식사 시간의 강제적 패턴을 마련해두고 아이가 먹도록 강요한다면 불안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아이의 몸을 “공격과 도피” 상태에 놓음으로써 정신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바꾸기 위해 부모님과 다른 간병인들에게 식사 시간 전에 아이가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권유합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5분 동안 깊은 호흡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숨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들이마시고 4 번을 세고,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내신 뒤 7번 또는 8 번을 쉼니다. 또는 두 사람이 바람개비, 풍선 또는 리코더나 하모니카와 같은 관악기를 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5 분 동안 “깊은 압력 촉각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체중을 모두 실은 뒤 벽을 손으로 밀거나, 자녀가 손바닥으로 당신의 손바닥을 밀어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운동을 좋아합니다.

3. 식사를 위해 식탁에 함께 앉습니다.

가족이 일상적으로 함께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모든 어린이, 특히 자폐증을 가진 아동들이 행동을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침대가 수면을 위한 환경적 단서이듯, 식탁은 식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환경적 단서입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행위 자체가 아이가 모방을 통해 배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여러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본다면 아이 역시 새로운 음식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녀가 식사할 때 필요한 첫 단계는 터치 패드 등을 가지고 놀면서 또는 텔레비전 앞에서 부모님의 무릎에 앉은 채 식사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가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할 것을 가족들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1분이라는 짧은 시간도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 후 칭찬과 작은 보상으로 식탁에서의 시간을 약 20분까지 점차적으로 늘리십시오. 처음에는 먹지 않아도 된다고 자녀를 안심시키고, 부모님께서 음식을 먼저 드신 뒤 음식을 자녀의 손이 닿는 곳에 두십시오. 이런 아이디어는 식사 시간에 대한 편안함을 증가시켜줍니다. 저는 자녀가 앉아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등을 더 많이 자극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이 동일한 테이블, 동일한 의자에 앉아 식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4. 자녀의 자세를 도와주세요.

자폐를 앓는 어린이들은 복부와 등 근육과 같은 중심 근육이 약합니다. 더불어 신체자각능력이 빈약한 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몸이 어떤 공간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감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식사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 자세가 나빠질 수 있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를 도와주시면 자녀가 의자에 몸을 앉히는 것보다 음식 먹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탁자에 기대거나, 다리를 움츠리는 것을 보면, 허리와 엉덩이 둘레에 수건을 말아서 놓아주십시오. 또 발이 지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바닥에 발이 닿지 않으면 의자 앞과 탁자 아래에 발판을 놓아주세요.

5. 점진적인 노출을 통해 새로운 식품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저는 실제로 자신 앞에 놓인 특정 음식에 대해 두려움을 보이는 아이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저는 많은 아이들이 음식의 외양에 특별히 강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한 실험에서 아이들 중 몇몇은 특정색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사과를 만지는 것을, 또 어떤 아이는 오렌지를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오렌지색 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뱀이나 거미에 대한 두려움 만큼이나 강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두려움을 궁극적으로 제거하고 조절하는 것을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진적인 노출의 원칙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에 불안감을 느낀 소년을 생각해봅시다. 먼저 저희는 그 소년 앞에 사과를 두고 몇 분 동안 보게 하며 편안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그가 사과를 먹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키고, 칭찬으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포크로 사과를 만져보았고, 그 다음에는 냅킨으로, 그 다음에는 그의 손가락으로 사과를 만져보게 했습니다. 저희는 '30초 동안 사과를 상대방의 뺨에 대보는 놀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사과를 자르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매우 두려워하던 음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6. 식사 시간을 정하고 지키십시오.

자폐를 가진 아동들은 일정에 따라 식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2 시간에서 3 시간 간격으로 식사와 스낵을 즐기게 하십시오. 그 사이에 우유와 주스를 포함한 간식은 없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자녀의 배고픈 신호를 특정 식사 시간까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의 몸이 지정된 시간에 음식을 기대하고 음식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자녀가 이미 먹은 것을 발전시키십시오.

어린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소스가 없는 하얀 스파게티라고 합시다. 당신은 다른 브랜드의 화이트 스파게티를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받아들이는 음식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현미 또는 다른 종류의 스파게티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약간의 버터가 들어가 있는 스파게티, 하얀 소스 스파게티 등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작고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 참고 인내하면서 친숙하게 보이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파게티에서 펜네 파스타로 바꾸는 것은 간단히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개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8. 특정 브랜드 상자나 용기에서 음식을 꺼냅니다.

특정 브랜드의 특정 음식만을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다른 음식을 일체 거절하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의 음식을 검색하는 데 과도한 시간을 소비하는 부모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식료품 포장을 풀자마자 음식을 꺼내어 속이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용기에 담음으로써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매우 구체적인 취향이나 모양 및 질감에 갇히지 않도록 가능한 많은 브랜드를 이용하십시오.

9. 음식으로 탐험하고 놀고 지저분해지도록 자녀를 격려하십시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배우며, 여기에는 음식을 가지고 노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점진적인 노출” 원칙을 잘 설명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감각을 통해 음식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음식의 모양과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보거나, 쿠키 커터 등을 이용해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푸드 스쿨(food school)”이라고 생각하고 연극을 통한 음식 학습(food learning)을 위해 매주 약간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귀하의 자녀는 탐구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음식을 더 편히 받아들이는 기초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10. 자녀의 행동이 아닌 음식에 집중하십시오.

식탁에서 벌어지는 도전적인 행동을 무시하십시오.

많은 어린이들이 침을 뱉거나, 징징거리거나, 탁자 위를 두드림으로써 가족 식사를 피하고자 합니다. 저는 음식에 관한 대화를 통해 이같은 부정적인 행동으로부터 주의를 환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모든 가족이 “음식 학습(food learning)”에 참여하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젖은 음식입니까 아니면 건조한 음식입니까?”

“이것은 냄새가 많이 납니까 아니면 약간의 냄새가 납니까?”

“이 잡곡밥은 쌀밥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 음식은 당신이 씹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나요?”

“우리가 먹는 다른 음식은 같은 색입니까?”

제시한 팁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Autism Speaks, Holland Bloorview Kids Rehabilitation Hospital의 테라피스트인 Moira Pena가 올린 글입니다.

혹시... 내 아이가...

3세 ~ 5세 사이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중, 아이들의 행동과 감정표현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센터에 방문하는 아이들 중에는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들도 있지만, 장애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행동이 학교나 집에서 어른들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혹시 자폐나, 그 이외의 발달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근심을 갖게 하는 아이들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주로 부모님들은 집에서 아이에게 훈육을 하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때로는 더 심해지는 행동에 부모님의 걱정은 더 커지고, 감정적으로 불안해 지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아이들이 주로 보이는 부정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고집이 세지는데 그 예로,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의 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얻을 때까지 울거나 때를 쓰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도 무조건 때를 부린다.
- * 때를 쓸 때 물건을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거나, 때로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혹은 반대로 테이블 밑이나 구석에 숨기도 하며, 바닥에 드러 눕기도 한다.
- * 물건을 일렬로 진열하며 몇 시간씩 놀기도 하고, 특정 하나에 집중해 그것만 찾거나 다른 놀이를 거부한다. 심지어는 그 놀이에 너무 집중하여 외출해야 할 때에도 데리고 나가기가 무척 힘들다.
- * 특정 몇 가지 놀이에만 심하게 집착하며, 그 놀이만 하려고 한다.
- *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본인이 놀고 싶은 것만 놀거나, 다른 친구들과 장난감을 나누어 놀지 않는다. 이럴 경우 같이 노는 친구가 없고, 형제, 자매와도 사이가 좋지 않다.
- * 언어 발달이 현저히 느리다. 말은 알아듣거나 또래가 익혀야 할 인지에는 문제가 없는데, 언어 표현을 잘 못한다. 전반적으로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혹은 인지 발달도 느린 것 같다.
- * 또래 친구와 상호교류가 없어 사회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부모나 선생님의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무척 어수선하고, 급하고, 잘 다치기도 한다.

그 이외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크게 위와 같은 행동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떤 특정 장애가 있지 않을까 상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의사 혹은 Regional Center에 의뢰되어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정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아동의 심리와 환경이 원인이 되어 행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혹은 기질적인 성향과 개인적인 발달 차이에 의해서 보여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3-6개월의 단기간의 치료세션을 통해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 아동들마다 원인이 다른 것처럼 그에 맞게 접근해야 하며 치료사와 부모님, 학교에서의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질 때 더욱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과 세션을 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을 무조건 고치려고, 좋아하는 활동이나 물건(장난감등...)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놀아주면서 조금씩 다른 활동으로 전이 시키는 방법입니다. 만약 아이가 기차만 좋아해서 그것만 가지고 놀거나, 뱅글뱅글 도는 기차를 한 두 시간 넘게 바라만 보고 있다면, 세션 중 기차는 보상이 되기도 하고 선생님과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다음의 세 단계를 적용해서 놀아주시면 좋습니다.

* 좋아하는 놀이로 시작 < 놀면서 상호교류하기 < 다른 놀이로 전이시켜 가기

음악치료에서는 음악 안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상기 시킨 후 여러 가지 음악놀이와 악기 탐험을 통해 호기심을 유발시키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제 행동을 바꾸어 나가도록 도움을 줍니다. 노래 속의 가사는 멜로디와 리듬을 통해 표현 언어 향상에 도움을 주며, 세션 안에 녹아 있는 규칙을 통해 선생님의 지시 따르기, 상호교류하기를 배웁니다. 즐거운 음악 안에서 긍정적인 감정 표현을 경험하고 감정 조절을 배우기도 합니다.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걱정되는 마음, 그로 인해 아이와 싸우게 되고 지쳐가는 감정을 참고 이기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서 행복한 엄마와 즐거운 아이가 되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음악 놀이를 소개해 봅니다. 아이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집중력 향상

깜짝 소리

준비물 : 집에 있는 소리 나는 악기와 물건들, 속이 보이지 않는 바구니, 바구니를 덮을 수 있는 천.

1. 먼저 가져온 물건들이 어떤 소리가 나는 지 같이 두들겨 본다.
2. 물건들의 이름을 엄마와 같이 말해보고 익힌다.
3. 바구니에 물건을 넣고 안이 보이지 않게 덮는다.
4.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엄마가 바구니 속에 손을 넣어 물건을 리듬에 맞춰 두들긴다.
5. 덮개를 열고 아이가 같은 소리가 나는 물건을 찾아보고 이름을 말하고 연주한다.

주의: 아이가 틀린 악기를 찾더라도 맞고, 틀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같이 활동하고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 하는 것을 놀이의 목적으로 삼으세요.

* 상호교류

날 따라와요

준비물 : 핸드드럼 혹은 집에 있는 타악기나 소리 나는 물건

1. 준비된 악기를 엄마와 아이가 함께 두들기며 노래를 부른다.
2. 노래를 부르면서 엄마는 아이가 어떤 리듬을 연주하는지 관찰한다.
3. 아이가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리듬을 엄마가 따라서 연주한다.
4.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따라 한다는 것을 알아 채도록 연주한다.
5. 연주하면서 아이의 표정이나 행동도 따라 한다.
6. 놀이가 무르익어가면 반대로 아이가 엄마를 따라 하도록 유도해 본다.

보통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지시하고 따라 하게 합니다. 이 놀이의 주 목적은 엄마가 아이를 먼저 따라감으로써 아이의 관심과 재미를 유도하며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놀이의 재미에 빠져 역할이 바뀌어도 계속 활동하게 되며, 이로 인해 지시 따르기와 상호교류를 배우게 됩니다.

* 감정표현

무슨 소리가 날까요?

준비물 : 산책, 자연의 소리 (때로는 녹음된 소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1. 산책을 하며 주위에 어떤 소리들이 있는지 이야기 하고 들어보게 한다.
2. 엄마가 의도적으로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잎새 흔들리는 소리, 빗소리, 강아지 소리 등에 아이가 집중하도록 이야기 해 준다.
3. 아이가 듣는 것을 보고 느낌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4. 엄마와 같이 그 소리를 입으로 만들어 내어보거나, 느낀 감정을 몸으로 표현해 본다.



자폐인식의 날 기념 골프대회 마치고



모든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자폐증을 상징하는 팔찌와 리본을 달고 경기에 참가 하였다.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서울메디칼그룹(회장 차민영)이 주최한 발달장애 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가 4월 3일 퍼시픽 팜스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146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하였으며 20명의 봉사자들이 새벽부터 열심히 땀을 흘리며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이날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메이저리그 투수인 박찬호 선수와 대한민국 테니스 선수로써 가장 높은 랭킹을 차지했던 국가대표 이형택 선수도 참가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영 김 전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께서는 아침부터 행사장에 오셔서 직접 참가자들과 봉사자들을 격려 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의 공동준비위원장이시며 우리 센터 이사이신 존 김 박사(세리토스 메디칼 센터 원장)께서는 이번 대회가 월요일에 개최됨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심에 감사를 표시했으며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인식이 거의 없었던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에 맞추어 대회를 개최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폐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행사가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메디칼 그룹의 골프 준비위원회와 우리 센터의 스태프들의 큰 힘이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메이저리거 투수 박찬호 선수



전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Young Kim



Harmonia Chamber Orchestra의
클라리넷 연주자 Kevin Chang



한국 테니스의 레전드 이형택 선수



스텝모두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센터의 이사님들과 스태프 그리고 선생님들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자폐증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에 조성된 기금을 통해 자폐증을 가진 학생과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도움을 주신 한인들의 좋은 뜻을 제대로 실현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조성된 기금 전액은 우리 센터의 음악과 농구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 자폐증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치료와 교육프로그램에 모두 쓰이게 되었습니다.

골프대회 후에 있었던 저녁 만찬에는 그 어떤 골프 모임이나 연말파티보다 멋진 행사가 될수 있도록 6인조 재즈 밴드의 공연이 있었으며 전문 사회자의 유쾌한 진행으로 대한항공 한국 왕복 비행기 티켓, 류현진 선수 싸인 유니폼, LPGA 장한나선수 사인 드라이버, 이형택선수 싸인 테니스라켓 등 많은 선물을 드렸으며 특히 미셸 박 스틸 OC수퍼바이저 사무실의 프랜시스 허 보좌관께서 참석하셔서 이번 행사에 대한 감사장을 모든 골프준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에는 자폐증을 갖고 있는 우리 센터 하모니아 오케스트라(Harmonia Orchestra)의 케빈 장 (CSUF)군이 클라리넷을 연주하여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으며 케빈 장 학생의 어머니 Johnna Cho씨는 한인사회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참가한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품고 내년 2018년 4월 7일 토요일 SeaCliff Country Club에서 있을 제2회 대회를 기약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나는 어린 아동들을 위해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행동 문제를 일으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비행 청소년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학교에서 쫓겨난 학생이 십대 일 확률보다 유아일 가능성이 세 배 이상 높습니다.

이런 통계가 많은 분들께 생소하겠지만, 유아 교육 및 건강 분야에서 일하는 저희에게는 익숙한 현실입니다. 유아들의 독특한 정서적, 심리적 필요를 발견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 아이들이 오래 전부터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이 집의 책임자로서, 최근 오렌지 카운티의 “유아 정신건강 공동 협력(Early Childhood Mental Health Collaborative)”의 노력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협력단은 다음과 같은 영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조직입니다: 행동 문제, 진단되지 않은 정신 건강 문제, 높은 정학 및 퇴학 비율, 유치원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한 시스템. 또한, 저희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센터, 오렌지 카운티 교육부, 오렌지 카운티 어린이 병원 등 다른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유치원 취학 전 아동이 학교에서 쫓겨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더 어린



나이에 중재(intervention)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족 • 교사 • 부양자를 유아 정신 건강 상담자 및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Cal State Fullerton의 사회과학 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유아 교육기관들이 행동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도울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기관들의 37%가 아이들을 행동 문제로 퇴학시킨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유아들의 약25%가 중재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유아들의 사회 • 정서 • 행동 건강은 앞으로의 입학 준비, 인간 관계, 심지어 훗날의 장기적인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과 부양자에게 유아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와 부양자의 역량을 계발하면, 유치원 입학 준비를 잘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의 삶의 여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건은 아이들을 올바른 프로그램에서, 올바른 자원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건강 및 인적 서비스 부서와 교육부에서 유아 정학 및 퇴학 정책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유아들이 교육기관에서 너무 빨리 퇴출이 되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공동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정신건강의 오명을 제거하고, 어린 아이들이 필요한 중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녀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부모님, 부양자, 교사, 서비스 제공자, 또는 자선가이시고 이러한 노력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협력단에 연락처를 보내주십시오: ecm.oc@gmail.com

출처: The Orange County Register 기사



Early Childhood Mental Health Collaborative

Supporting Early Care and Education

출처: Children & Families Commission of Orange County



Over one-quarter

오렌지 카운티의 유아 교육 기관의 1/4 이상이 아동들의 행동 또는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Over one-third

1/3 이상은 그들의 기관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퇴학시켜야 했습니다.



three times the rate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들이 유치원-12학년까지의 학생들보다 학교에서 쫓겨나는 비율이 3배나 높습니다.



Only one-third

그러나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있는 아동들의 1/3만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7 year delay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들이 실제로 치료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7년 정도 지체됩니다.

The Opportunity:

부모님과 교사들이 함께 아동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잘 살필수 있도록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여 중재가 필요한 어린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합니다.
유아교육자들과 협력하여 부모님과 교사들을 교육하여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합니다.
조기 교육기관이 아동의 행동 및 정신 건강 담당하는 기관의 시스템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What we are doing

* 저희 센터에서는 5세 미만 자녀들의 심리, 정서, 행동문제에 걱정이 있으신 부모님들을 위해 왕글로벌넷의 후원으로 아동들의 전반적인 발달선별검사와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의심되거나 더 자세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의뢰해 드립니다.

* 부모님과 교사들을 위해 아동발달과 정신건강에 관한 세미나를 원하시는 교회에는 "찾아가는 세미나"를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무료로 해드립니다.



헐리웃 볼 문화체험



우리 센터에서는 지난 4월 29일 토요일 오후에 약 2만명의 관객이 모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외 공연장인 헐리웃볼을 다녀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매년 주최하는 헐리웃볼 음악 대축제가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30명의 우리 학생들과 가족들이 맛있는 먹을거리들도 준비하여 오랜만에 소풍을 가는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모였습니다.

하하, 거미, Block B BASTARZ, VICTON, APINK, Tiffany, DJ DOC 등 TV에서만 보았던 유명한 연예인들의 공연에 우리 학생들은 함께 박수를 치기도 하고 몸을 움직여 춤을 추기도 하며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할 수 없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센터의 학부모님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녀들의 장애로 인해 이런 야외활동을 약 70%의 가족들이 수년째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앞으로는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야외활동을 지원하며 가지려고 합니다.



Hollywood Bowl 을 다녀와서..

무엇이 그리 바빴는지 오랫동안 함께 외출을 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은 한미특수교육센터의 농구교실에 다니는 아들 준에게 주어진 3장의 무료 티켓 덕분에 오랜만에 지난 4월 29일 열린 헐리웃볼 코리안 뮤직 페스티벌에 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런 문화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한미특수교육센터와 후원해주신 **Open Stewardship Foundation**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잠시나마 모든 고민을 잊고 군중과 더불어 함께 즐기며 노래도 따라 부르는등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들 준도 무척이나 즐거워하였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공연의 열기가 더해지며 아들 준도 흥에 겨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서 웃음이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는 걸 보며 많이 놀랐습니다.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자꾸 틀에 박힌 일상 생활만 고집하는 장애의 특성 때문에 밖에 나가기 어렵다고 미리 포기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럴수록 이런 새로운 경험을 자주 접하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행사를 통해서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John 어머니

한미특수교육 센터 프로그램 안내

특수음악 프로그램

노래와 악기들의 음악적 요소를 이용해 행동과 정서상 문제 해결을 돕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폐증, ADHD, 유치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놀이치료

정서가 불안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발산시킴으로써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하고 아동의 잠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 방법입니다.

KASEC 통합 농구교실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APE 교사와 농구 코치의 지도하에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며, 농구의 기본기술을 배우고, 사회성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ADHD Consulting

현재 공립학교에서 재직중인 Resource Specialist로 부터 ADHD 와 학습장애 가능성 여부와 진단과 학교문제에 대한 문의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arenting Seminar/ Workshop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모교육세미나와 워크샵을 제공합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와 부모님의 스트레스 조절방법, 효과적인 대화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ASQ Developmental Screening

Wang Globalnet Fund의 지원으로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발달선별검사를 해드립니다. 의사소통, 소근육, 대근육발달, 문제해결능력, 사회성 발달에 대해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Children's Health Screening Fair (LA & OC)

Orange County와 Wismettac Foundation의 기금 지원으로 OC와 LA에서 발달선별검사 및 건강 박람회를 엽니다. 무료로 8개의 발달 영역에 대한 선별검사와 자폐증 및 발달장애와 관련된 상담 및 학교서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폐증/발달장애진단

발달선별검사서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센터 발달소아과 전문의에 의한 자폐증 또는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자폐증 부모를 위한 Consulting도 함께 제공합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2017년 3월11일부터 6월7일까지)

개인

Bella Shim, Cecilia Paik, Choi Family, Jason & Stella Gee, Kimberly Park, Lisa Yi, Rudia Lee, Sarah Woo, Virginia Moon, Yongho Paik, Young K. Chung, 김소영, 김신규, 김완영, 김효정, 나성애, 박규남, 박수정, 박지경, 배홍림, 송해숙, 신동휘, 양선주, 양철승, 오영환, 유재란, 육재민, 윤현숙, 이은영, 장인숙, 정봉실, 조동연, 한동휘

교회 및 단체

AXA Foundation, Cerritos Medical Center, Dough City Corporation, New York Life, Nongshim Holdings USA, Sunrise Foundation, Transtar Transportation, Wang Globanet, 뉴저지 초대교회, 성토마스 한인성당, 연세대학교 남가주동문회, 하심교회

* 4월 6일 '세계자폐인식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SMG Charity Golf를 통해 후원해주신 기업, 단체, 개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 후원안내

1. 온라인 후원방법

저희 Web site www.kasecca.org의 Donate button을 누르시면 Credit Card나 Debit Card로 간편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 저희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은행에 저희 은행 및 계좌 information을 주시면 됩니다.

Bank Name: **OPEN BANK**

Routing Number : 122043958

Account Number: **04200218**

Account Name: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센터이름: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주소: 13353 Alondra Blvd. #110, Santa Fe Springs, CA 90670

3. 우편으로 Check를 보내주실 분들은 Payable to KASEC 로 쓰셔서 위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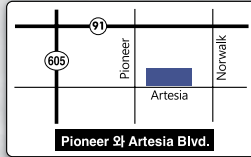
4. Smile.amazon.com

Amazon으로 쇼핑 하실 때, smile.amazon.com으로 들어가셔서 “pick your own charitable organization”에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를 선택하시면 총 구매 금액의 일부가 자동으로 KASEC으로 기부됩니다.

* 저희 센터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ax ID 20-1635852)

진료 과목

- 일반내과(고혈압, 당뇨병)
- 소아과(예방주사, 신체검사)
- 부인과(PAP Smear, 유방암 검사)
- 외과, 피부 비뇨기과
- 종합 건강 진단과 진찰(Physicals)
- 직장사고, 교통사고
- 응급치료(Urgent Care)
- 알러지 검사 및 치료
- 각종 피검사
- X-Ray 검사, 초음파, 심전도
- 위, 장 내시경 및 조직검사
- 레이저 치료
- 골다공증



각종보험 / 메디케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김신근 가정 주치의
John S. Kim, M.D.

미국 보드 전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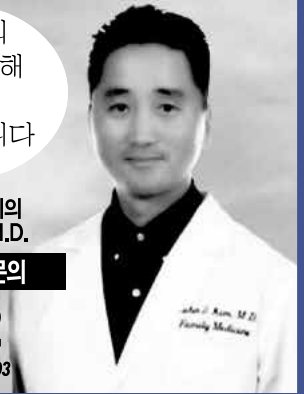
진료 시간

월-금: 8:30AM~6PM

토: 8:30AM~1:00PM

562.402.7622

11911 Artesia Blvd. Suite #101 Cerritos, CA 90703



Truck Load, Less Than Truck Load and Transportation Service

- ◆ Truck Load to Northern California, UT, CO, AZ, NV, TX, etc
- ◆ LTL(Less Truck Load) Service in California
- ◆ 53 ft Trailer & 26 ft Bobtail Trucks available

Tel : (310) 534-0113

Mobile: (310) 800-8510

Fax: (310) 534-0116

E-mail: Transtar.inc@gmail.com

24328 S. Vermont Ave. suite #355 Harbor City, CA 90710

TranStar Transportation, INC.

Jay Shin, President



Gene (Seungjin) Seok, MBA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CA Lic. #0H89595)

Registered Representative offering securities
through NYLIFE Securities LLC (member FINRA/SIPC),
A Licensed Insurance Agency

675 Placentia Ave, Suite 250, Brea, CA 92821

Bus. 714.255.7145 Cel. 949.232.0872 Fax. 714.255.5199

sseek@ft.newyorklife.com



JS Auto Tech Inc.

Auto Body & Repair

24 Hour 714.878.5945 Toll Free 888.636.5067

이요섭 **Joseph Lee** President

www.jsirvineautobody.com

jsautotech@hotmail.com

FULLERTON BRANCH

158 N. Gilbert St. Fullerton, CA 92833
T. 714.870.0600 F. 714.870.0670

H.Q OFFICE

10571 Acacia Ave. Garden Grove, CA 92840
T. 714.636.5067 F. 714.636.5068

IRVINE BRANCH

260 E. Dyer Rd. Santa Ana, CA 92707
T. 714.557.0500 F. 714.557.0503

“찾아가는 서비스”

24시간 무료 토잉

Since 1992

STEVEN C. KIM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STEVEN C. KIM
ATTORNEY AT LAW

The Wilshire Colonnade

3701 Wilshire Blvd., Suite 1040
Los Angeles, CA 90010

(213) 365-7007

Fax (213) 365-7001

stevenckim@sbcglobal.net



Kyu Bum Han
Lic. # 0B55520

GLOPAX FINANCIAL & INSURANCE SERVICES
Insurance & Financial Planning

7740 Painter Ave., Suite 206 Whittier, CA 90602
Phone: (562) 945-2670 Fax: (562) 945-2680
info@iglopax.com



Christina Kwon
Realtor®

Direct: (714) 504-6767

Office: (714) 451-1700

Fax: (714) 451-1720

christinakwon@socalbest.com



BEST REALTY

413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Each Office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MLS**

Solution for Tomorrow



CEO David Chul S. Yang
대표 양철승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 323.730.5050 F 323.731.1313 C 323.383.3723 david@laservisionworld.com

Michelle Cho REALTOR®

Cell: 714.388.2002

realtor.michellecho@yahoo.com



BEST REALTY

Office 714.451.1700
Fax 714.451.1720
413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Sean S. Lee, LUTCF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CA Insurance License #OH62773



Fraser Financial Group

3530 Wilshire Blvd. Suite 105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252-6209

Cell (562) 728-3808

Fax (213) 252-6299

seanlee@financialguide.com

유재욱
팀장
HP TEAM 76

C : 213-700-0173
E : jaeyoo929@gmail.com
www.coway-usa.com



COWAY USA INC.
422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 CA 90010

PARIS BAGUETTE

Cerritos Branch

17416 Carmenita Rd.
Cerritos, CA 90703
Tel. 562.404.0440

LAW OFFICE OF JENNIFER S. CHANG

JENNIFER S. CHANG, ESQ

5900 WILSHIRE BOULEVAR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36

JENNIFER@JENCHANGLAW.COM
TEL (323)931-5270
FAX (213) 896-7050

WWW.EDUCATIONRIGHTSATTORNEY.COM
WWW.JENCHANGLAW.COM

“ 제니퍼 장 변호사는 따돌림, 정학, 퇴학같은 학교 생활 문제부터
특수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사안까지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교육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



wang and  are family.



The Original Korean Brand

Taste of Korea



WANG GLOBALNET www.wangfood.com VERNON, CA. 90058

Executive Director

Rosa Chang (M. Ed. in Special Education,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Board Members

이사장 양한나

실행이사 한규삼 (뉴저지 초대교회 담임목사), 이경미 (AXA Financial Advisor), Bella Shim, 조제원 (신경과학연구단장, KIST), Christina Kwon (Realtor, Coldwell Banker), John Kim (세리토스 메디컬 센터 병원장), 강승현 (Wang Globalnet 대표), Roy Cho (Angeles Contractor, Inc. 마케팅대표)

Advisory Board Members

이시연 박사 (Cal State LA 사회복지학과 교수)
Susan Chung 박사 (Kaiser 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승혜경 박사 (Cal State Fullerton, 의사소통장애학과 교수)
정우식 박사 (Cal State Fullerton, 특수교육학과 교수)
박랑규 박사 (아이코리아 아동발달교육연구원 원장)
박현선 박사 (Children's Hospital of Orange County, 소아 발달전문의)
박규남 (Special Education Specialist, Lynwood School District)
Jennifer Chang (특수교육법 변호사)

Administrative Staff

Clinical Program Coordinator

Yoon Sun Sung (Ed.M in Language and Literacy,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lanning & Public Relations Manager

Sam Yoon (B.A. in Church Music, Yonsei University)

Administration Officer

Seon Young Hong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Clinical Staff

Therapy

Esther Lee (CCC-SLP, M.A. in Speech-Language Pathology, Northwestern University)
Heesoon Jeon (M.A. in Music Therap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ristina Cho (M.A. in Occupational Therapy, CSUDH)

Adapted Physical Education Program

Kevin Ma (M.A. in Education, CSUDH, APE Credential in CSUN, 현 LAUSD APE Specialist)

Early Intervention/Social Skill Program

James Lee (M.A in Special Education, University of Oregon)

Developmental Disorder Evaluation

Hyun S. Park (M.D. in Developmental Pediatrics, 현 UCI Asst. Clinical Professor of Pediatrics)

Special Education Consultation & ADHD Consultation

Hwa Byuck Lee (M.A. in Special Education, CSUF, 현재 Los Cerritos School RSP Teacher)

Harmonia Music Academy/Harmonia Chamber Orchestra

Seyon Park (D.M.A in Choral Music and Instrumental Conducting, USC)